

순천시, 불법투기 쓰레기 제로화 도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등 아동
상습 투기지역 355곳 집중 감시
과태료도 20만원으로 인상 추진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한 쓰레기 없는 단 하나의 도시를 선포한 순천시가 그 첫 단계로 '불법투기 쓰레기 제로화' 달성에 도전한다.

지난해 1월부터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순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특별관리와 공격적인 계도활동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30% 감소, 처리비용 17억원(연간) 절감이라는 성과를 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대폭 인상 =순천시는 올해 시민 홍보단과 감시단을 정비하고 불법 투기 상습지에 대한 주야간 감시활동을 보강한다. 또 재활용 수거함과 한옥 수거함은 공무원과 자원순환리더 지역 주민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수거함 디자인도 정원의 도시 이미지에 맞게 개선한다.

순천시 특히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원룸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순천 주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순천자원순환센터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인상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적발 및 재분류 정리 후 수거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방치 쓰레기 및 불법 투기 쓰레기를 매일 적발해 수거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투기 쓰레기 방지시 도시 미관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30% 감소...올해는 제로화 도전 =순천시는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목표로 반상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 전단·스티커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공무원과 시민이 합동으로 전 세대 방문, 주·야간 차량용 가두방송, SNS 및 홈페이지를 통

한 홍보 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각종 쓰레기 감축 대책을 추진해 불법투기 상습지가 355개소에서 85개소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으며 지난해 하루 평균 발생한 쓰레기도 205톤으로, 2014년 223톤 대비 18톤(9%)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중 생활쓰레기는 30%나 감소했으며 재활용품 35% 증가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12.7%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불법 투기 감소와 함께 종량제 봉투 사용률도 지난 2014년 85%에서 지난해 98%로 늘면서 종량제 판매수입도 2014년 33억8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0억 8400만

원으로 7억원이나 늘어났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으로 처리비용도 연간 1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해 추진한 각종 쓰레기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도 홍보활동에는 순수 자생단체인 자원순환리더와 민간감시요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이동장 등이 참여한다.

또 불법 투기 상습지역인 355개소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활용해 담당제를 시행하고,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지역 72개소에 대해서는 이동식 자동 안내방송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조태훈 순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정정한 정원의 도시 순천다움을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첫 번째 시민실천은 불법 투기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순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자원순환센터를 가동해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전처리 후 고품질연료(SRF)를 생산해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퇴비화해 농가에 공급하는 등 쓰레기를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서울 '순천학사' 입사생 54명 모집



순천시는 19일 "서울과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 안정과 면학편의 제공을 위해, 2016년도 서울 내 발산동 공공기숙사 '순천학사'의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천지역 출신 학생이 사용하는 '순천학사'는 35실로 총 70명의 입사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기존 입사생 16명을 제외한 54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자녀, 순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게는 가점이 적용되며, 학교성적, 생활 정도 등을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입사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순천시 평생학습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www.suncheon.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평생학습과 교육지원담당(061-749-6762)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2014년도에 서울시와 순천시 등 전국의 8개 지자체가 참여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평로1길 131(내발산동)에 건립됐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효율성 논란

7개월 준비에 인건비 과다지출
반려견 산업 육성도 헛구호
비수기 개최해 관광객 유치률

순천시가 올해로 4회째 운영하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동물영화제)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 7일짜리 행사준비를 명목으로 7개월 동안 행사 관련자 인건비와 서울 사무실 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최시기도 순천을 찾는 인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성수기인 5~6월로 예정돼 있어 동물영화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도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영화제 개최를 통해 반려견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동물영화제는 오는 5월~6월께 개최할 예정이며 6억원(국비 1억원, 시비 5억원)의 예산과 농협과 하나은행의 지원 등 총 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지난해 순천시의회 상임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사예산 사용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출과 예산 규모에 비해 관광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영화제 예산 표결을 통해 간신히 예산이 통과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순천시의회는 총 7일간 열리는 영화제 준비를 위해 행사 관련자 인건비를 무려 7개월이나 지출하고, 서울 사무실의 운영비도 수개월간 지출되는 등 본 행사비보다 준비에 들어간 인건비와 경성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선 제3회 영화제에서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무려 1년(12개월)내내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놔다가 순천시의회의 강한 반발로 7개월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순천시의 대표축제인 갈대축제도 1~2개월 준비했다가 행사 후 1개월 정산 후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지출계획 예산으로 잡힌 7개월 예산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의 1~3회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1회 때에는 인건비가 11개월 동안 1억2000만원이 지출됐으며, 2회에는 인건비 2억3000만원과 경성운영비 5600만원 등 총 3억여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열린 제3회 영화제에서는 인건비와 경성운영비 등에 2억4000만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는 동물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반려견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산업의 육성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개최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제가 열리는 5월은 최고의 관광 시즌으로 행사가 없더라도 순천만국가정원이나 낙안읍성 등 순천 지역에 대규모 관광객이 몰려드는 시기로, 오히려 관광 비수기에 개최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3회까지 개최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문제점을 보완해 후방산업 육성 등 효율적인 동물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자원봉사단 '어울림' 단원 25일~2월5일까지 모집

순천시는 19일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할 제9기 '어울림'단원 20명을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또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자원봉사단원은 월 1회 정기회의와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고, 지역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2월 26일부터 12월까지이며, 활동 시간 확인 후 상시 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일정 활동 이상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시장 명의 활동인증서가 발급된다.

지난해 제8기 어울림 봉사단은 댄스공연, 클레이아트, 종이접기를 직접 배워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였고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기도 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순천시청소년수련관 1층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youthspecialist@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교도소 수형자 17명 학사모 썼다



순천교도소 수형자 17명이 교도소안에서 학사모를 썼다.

19일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내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순천청암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호텔외식조리과 제12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졸업식에는 강명은 청암대학교 총장과 안운봉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수형자들은 2년간 전문학과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

수하고 양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순천교도소와 청암대학교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교도소 내에 선풍캠퍼스를 마련해 12차례에 걸쳐 2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영준 순천교도소장은 "고등 직업 교육을 통해 수형자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